



혁신도시는 눈에 덮힌 채... 14일 하늘에서 내려다본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일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사현장. 세종시 수정안으로 혁신도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걱정을 반영하듯 흰 눈이 내린 들판에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헬기조종: 광주시 소방항공대 박창순 항공대장, 장화식 부기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르포 '세종시 직격탄' 맞은 나주혁신도시 가 보시

“정부 믿다가 뒤통수 맞았다”

“공공기관 이전 눈치보기 심해질라”

활기 사라지고 불안감 속 황량함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서 는 나주시 산포면과 금천면 일대 주민 들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분 함을 억누르지 못했다. 정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지역 발전을 위해 내놓았 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이전기관들로 인한 상권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들 은 하나같이 격앙된 표정이었다. 정부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며 거세 게 반발했다. <관련기사 3면>

14일 찾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 시 공사현장은 황량했다. 분주히 오 갔던 덩크트럭도 보이지 않았고 땅을

파던 대형 포크레인은 눈으로 얼어붙 은 들판에 머리를 숙인 채 멍혀 있었 다. '세종시 블랙홀'로 모든 게 빨려들 어간 듯한 황량함이 가득했다. 혁신도시내 3공구 현장 소장 이훈 호 소장은 “폭설로 일주일 동안 공사 를 하지 못했다”면서 “공사를 하는 입 장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으로 혁신도 시가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 공사 는 현재 25.35%의 공사 진척률을 보 이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전력을 비

롯, 전력거래소와 사학연금관리공단, 한전KPS 등이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 하면서 한층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 했던 주민들은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격앙돼 있었다. 부지매입 예산까지 확보한 한전 KDN 등은 여전히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7개 공공기관중 고작 5개만 이전했을 뿐 이다.

나주공판장이 밀집한 거리에서 만 한 주민은 “정부 부처는 이전하지 않는데, 산하 기관만 이전하라고 하 면 말을 들겠나”고 했다. 이번 수정안 발표로 공공기관의 이전 눈치보기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 오는 이유다.

부동산 거래도 뜸 그쳤다. 조성원 가의 70%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는 데다, 입지 여건도 좋은 탓에 한전의

부지 매입 계약 체결 이후 '이주자 택 지 분양권'을 사려는 외지인들의 방 문과 문의가 끊이지 않았지만 최근엔 이같은 움직임이 사라졌다. 최고 4천 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었던 이주자 택지 분양권도 이번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인기가 급락, 프리미엄이 2 천만원대로 떨어졌다고 한 부동산업 계 관계자는 전했다.

300여 이주택지 분양 대상자들은 “재정착을 위해 이주자택지를 분양 받아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정부가 어떻게 불쌍한 농민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주민대책 위원회 박경석(48) 사무국장은 “세종 시 수정안은 광주전남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전국 혁신도시를 다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문화전당 콘텐츠 확보 본격화

추진단, 옛 도청별관 보존 방식 상반기 마무리

문화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올해부터 2014년 개원 예정인 전당의 운영체계 구축과 콘텐츠 확보 등을 위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세계 곳곳에서 복합문화시설 설립 추진을 서두르고 있어 문화전당을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기 위해서는 운영 프로그 램과 콘텐츠 등 수준 높은 소프트웨어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관련기사 3면>

또 추진단은 올 상반기까지 전당 설립의 발목을 잡았던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수정, 기본 및 실시계획 추진 등 전당 건립 공사도 조속히 재개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14일 오전 동구 급남로 추진단 사무실에서 '2010년도 주요사 업 발표회'를 갖고 올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등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병훈 추진단장은 이날 “2010년 주요 업무로 ▲옛 도청 별관 보존방 식 결정 및 전당 건립 ▲전당운영 시

범사업 추진 ▲전당 운영체계 구축 ▲문화중심도시 조성기반사업 추진 등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점점이 된 옛 전남도청 별관의 보 존방식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구조 안전전단의 기술적인 평가와는 별개 로, 설계자 우규승씨와 설계자문의 의,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부분 보존을 전제로 한 개념설계를 마칠 예정이다. 또 초안이 제시될 경우 '5 월의 문' 등을 주장해온 시·도민 대책 위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친다.

추진단은 또 아시아와 한국의 문화 융합을 통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한-아 세안 전통오케스트라 등을 통한 전통 음악 콘텐츠화, 한-중양아시아 신화· 설화 공동조사·출판을 통한 스토리 뱅 크 구축, 한-남아시아 예술 커뮤니티 구축, 아시아전통음악자원개발 및 다 큐멘터리 제작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또 중앙정부와 광주시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투자진흥지구 조 성, 랜드마크 건축물 건립 논의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병훈 추진단장은 “옛 도청 별관 부분 보존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보존 방식에 대해서는 설계자와 전 문가의 몫으로 남겨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국회 18일 본회의 처리될 듯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올 1 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14일 새벽 전체 회의를 열어 ICL 도입을 위한 특별법 과 등록금 상환제 시행을 위한 고등 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관련 기사 6면>

국회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관 련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정부는 1 학기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취 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은 대출 채무

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소득 외 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 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때는 대출원리 금의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또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 상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는 한편 정부가 별도로 매년 1천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 저소득층 성취우수자에 대해 무상장학금을 지 원토록 했다.

국회는 또 오는 6월 교육감과 교육 위원 선거를 위한 교육자처법 개정안 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다음달 1일 처리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

“혁신도시에 전남대 2캠퍼스를”

이건철 전남발전선임연구위원

정부의 세종시 첨단·녹색산업단지 육성 방침 추진으로 조성효와 반감이 우려되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성 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남대 등 대학의 제2캠퍼스, 광주과기원 분 원 등을 유치해 전략산업 클러스터 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 위원은 15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향후 경기전망과 지역산업 활로모색' 심포지엄에 앞서 14일 배

포한 '대형국책사업을 통한 광주·전 남 산업발전 전략'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혁신도시를 광주·전남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내에 한전을 축으로 한 에너 지 산업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클러스터의 조성의 핵심인 전남대 등 대학의 제2캠퍼스, 과학기술원 분원, 연구기관 유치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나주혁신도시, 광 주 R&D특구 일대에 지식기반 산업

과 전략 산업군을 연계·집적화한 광역형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튼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세계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계기스타·세계보청기. 1588-8489/062-222-8100